

차오르는 달을 통해 엿보는 가치의 가변성

28일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개막 강원제 등 4명 참여... 40여점 선배 각각 키워드 이분법적 대립 조명 "달 차오르듯 가치의 변주 그려내"

우리가 견고하다고 믿었던 가치는 과연 불변인가. 이 질문에 대해 예술적으로 답을 제시한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제23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위상의 변주'를 오는 28일 개막식과 함께 7월 16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초대전에는 강원제(대구), 유지원(광주), 김덕희(부산), 안준영(전북) 등 최종 4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지역 대표 공립미술관의 추천과 세미나를 통해 참여가 결정됐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하나의 큰 주제, '위상의 변주'를 발견했다. 작가들의 작품에는 각각 다른 키워드로 그려낸 '이분법적인 대립'이 존재한다. 이 대립은 모두 대척점에 위치해 반대의 모습인 듯 보이지만, 따로 분리할 수 없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지러졌던 달이 차오르면서 달의 위상이 변화하듯 우리가 견고하다고 믿었던 가치들이 어떻게 변주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강원제는 회화의 완성과 미완성, 완결된 이미지와 그리는 행위 등의 대립, 유지



김덕희 작 밤 속에 녹아있는 태양/ 2021/ 파라핀 왁스, 염료, 캔들 심지/ 가변 크기 설치.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원은 삶의 터전과 폐허의 대비, 쾌적한 도시의 삶 이면의 소외와 파괴를 보여준다. 김덕희는 물질과 에너지, 밤과 낮, 혼돈과 질서의 순환을 보여주며, 안준영은 물리적 층위의 몸과 추상적 층위의 정신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이처럼 반대되는 지점에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이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 분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순환하며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제 작가는 예술의 형식에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194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작품의 결과보다 아이디어 혹은 제작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풍토가 등장하며, 전통적인 회화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잇달았다. 이를 이어받아 동시대 화가의 관점으로 풀어낸 그의 작품은 완성에 다다를 때면 또다시 해체하고 이는 다시 시작으로 이어져 순환한다.

유지원 작가는 폐허의 조각을 재조합해 '가치의 재구성'이라는 테마로 예술 공간

즉, 제도 안에 들여놓는 작업을 선보인다. 그는 프랑스 유탕 당시 버려진 잔해들, 속수무책으로 방치된 것들에 이끌려 '예술가의 여정(2015)' 영상 작업을 진행했고, 이는 이후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작가는 좁는 행위를 통해 항상 새로운 것을 쫓는 현대인의 모습을 조명한다. 또 이렇게 얻은 재료들은 전시장 내에서 또 다른 작은 공간을 이루며 재구성된다.

김덕희 작가는 물질과 에너지의 상호작용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는 주로 열을 매개로 드러나며, 열에너지가 물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관람자를 사유의 시간으로 초대한다. 작품에서 '열'은 공간을 밝히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작품의 주재료인 파라핀을 녹이는 물리적 힘을 행사한다. 이처럼 작가는 모든 생명 활동에 필요한 근원의 에너지인 열을 매개로 혼돈과 질서를 넘나드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안준영 작가는 동시대 미술가의 불안감, 그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는 신경증, 불면증 등의 고통이 반영된 작업을 선보인다. 가는 펜으로 면밀하고 단단하게 그려진 그의 작품은 강박적인 세부 묘사에도 불구하고,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인해 한눈에 정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작가는 주관적인 고통을 날 것으로 직접 제시하기보다 사실적이지만 은유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관람자가 작품 속으로 반감 없이 들어와 상상할 수 있게 이끈다.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지구와달의 공전과 자전이라는 관계 속에서 달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여러 가치도 사회와 개인에 따라 또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위상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기도 한다.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저무는 때가 오기도 하고, 반대로 지금 소외받고 배제된 가치가 다시 떠오르기도 한다"며 "전시를 통해 네 명의 작가들이 집중하고 있는 가치(개념)와 우리 주변을 둘러싼 위상의 변주에 대해 사유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 개막식은 오는 28일 오후 4시30분에 시작되며, 하정웅 명예관장 내외도 참석할 예정이다. 바이올린 제작의 세계적 명인인 진창현 선생이 현악기 4종을 기증해 기증의 뜻을 기리는 개막 축하 공연도 진행한다.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은 청년작가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빛'이라는 타이틀로 개최되고 있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고 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만 45세 이하의 청년작가 중 발전 가능성이 돋보이는 작가를 선정한다. 지금까지 23회를 맞이했으며 119명의 작가를 배출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맛있고 멋있게 즐기는 아시아 문화

ACC 아시아문화예술교육 운영 '밥·인장' 등 주제 4개 강좌 구성

밥, 빵, 인장(印章), 정원 등 아시아인의 일상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체험형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시아 문화예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ACC 아시아문화예술교육'을 오는 30일부터 6월까지 ACC 문화교육실에서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아시아 여러 도시의 음식문화를 경험하는 'ACC 아시아문화 예술체험'과 아시아 인장 및 정원을 체험하는 'ACC 아시아특화교육' 등 2개 분야 4개 강좌로 구성됐다.

'ACC 아시아문화예술체험'은 오는 4

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첫째·셋째 수요일에 걸쳐 총 6회 교육한다. 아시아 여행 작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했다.

이기중 전남대 교수는 자신의 일본 여행 기록을 중심으로 '아시아 밥 로드'를 소개한다. 일본 밥 문화를 주제로 도시를 여행하며 느낀 일본 밥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줄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생의 호평을 받은 '아시아 빵 로드'는 올해 강의 시간을 저녁으로 옮겨 운영한다. 직장인 등 더욱 다양한 시민의 참여와 편의를 위해서다. 아시아 빵 여행 작가인 박미아·복혜원 강사가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겪은 일화를 들려준다. 아시아 도시의 문화를 반영한 특색 있는 빵의 세계로 수강생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ACC 아시아특화교육은 '아시아를 새기다'와 '동아시아 정원문화'를 주제로 아

시아 문화와 가치의 이해를 돕는다. 강의는 오는 30일 시작으로 6월29일까지 모두 19회 차까지 계속된다.

'아시아를 새기다'는 아시아 문명 속 문자와 인장(印章)의 발전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는 인장과 엮서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아시아를 이해하는 기회다.

'동아시아 정원문화'는 한·중·일 각국의 문화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야생화, 돌, 흙 등을 재료 삼아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풍경 정원'을 표현하고 담아내는 과정이다. 박은영 중부대 교수와 꽃피우다 플라워 디자인 스텝 정연주 대표가 강사로 나서 동아시아 정원문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특별한 경험을 시민에게 선사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수강 신청은 각 교육별로 15~30명씩 선착순으로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받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남도식품 명인들 'K푸드' 이끈다

'식품명인대물림 연구회' 창립 호남대 대물림 프로젝트 결실

남도미식의 원형을 대대로 지켜온 명인들의 맛과 정성을 대물림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회를 결성했다. 식품명인대물림 연구회가 24일 광주 동구인문학당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식품명인대물림 연구회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과 호남대 외식조리학과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식품명인대물림 프로젝트'의 결실이다. 대물림프로젝트를 통해 최영자 광주시무형문화재17호 남도의례음식장, 사찰음식 대가 정관스님, 오히숙 부각명인, 심은떡명장 등 전통식품 명인들은 전국에서 모인 120명의 수강생에게 장류, 음청류, 떡, 한과 등 맛의 비법과 노하우를 전수했다. 수강생 중 식품명인에게 전수받은

40명의 회원이 연구회에 참여했다. 출범식에는 최영자(광주시무형문화재)와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구), 김진강 광주관광재단 대표, 이승익 호남대 교수가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또 초대 회장을 맡은 송기희 호남대 교수가 식품명인대물림 현황 및 비전을 소개하고 노지현 부각마을 대표가 '브랜드가 답이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기희 호남대 외식조리학과 교수는 "명인의 맛을 대물림한 이들이 전통식품의 현대화와 상품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첼리스트 김민지, 여수에코국제음악제 예술감독 선임

6월15~18일 예울마루서 공연

첼리스트 김민지(사진)가 예술감독을 맡아 여수에코국제음악제를 이끈다.

재단법인 범민문화재단과 한국음악협회 여수지부는 초대 예술감독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소진에 이어 김민지를 2대 예술감독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민지 예술감독은 "여수에코국제음악제를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뛰어난 연주자들과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페

스티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민지는 HAMS 국제 콩쿠르 1위 우승자 특전으로 음반을 발매했으며 어빙 클라인 국제 현악 콩쿠르 1위 입상과 위촉작품 특별상을 거머쥐었다.

또 지휘자 로린 마젤이 이끄는 스페인 레이나 소피아 오케스트라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부수석을 맡았다. 현재 덕수궁 석조전 음악회 음악감독, 첼리스트 첼로 앙상블 수석과 서울대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3 여수에코국제음악제는 오는 6월15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6월18일까지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총 4회 공연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사찰음식명인 정관스님(천진암)이 식품명인대물림프로젝트에서 수강생들과 장류활용 음식을 전수하고 있다.